

2026년 야구 시즌이 “시작한다”는 말이 그냥 달력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일의 일정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걸 올해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야구중계 찾아보는 분들은 보통 두 리그를 동시에 보려는 경우가 많아요. KBO는 당장 내일 저녁에 누굴 보게 되는지, MLB는 한국 시간으로 언제쯤 깨어 [야구중계](#) 있어야 하는지. 그 차이를 제대로 잡아야 중계 보는 리듬이 안 깨져요.

올해 구도는 더 선명합니다. KBO 정규시즌은 3월 28일 개막했고, MLB는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양키스의 단독 개막전으로 시작한 뒤 3월 26일에 나머지 팀들의 전통적 개막 일정도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정 자체가 겹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미 “MLB를 먼저 맛보고, KBO로 일상을 붙잡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3월 중순부터 달라지는 화면, 이유가 있다

야구중계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 내가 눌러야 하는 페이지가 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공식 일정 페이지가 구조적으로 다르게 제공되는 걸 알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KBO 공식 일정은 경기 정보가 꽤 깔끔하게 묶여 있어요. 날짜, 시간, 경기(대진), 게임센터, 하이라이트, TV, 라디오, 구장까지 한 화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계를 실제로 돌릴 때 필요한 요소가 한 번에 정리돼요.

반면 MLB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편성돼요. 이게 한국에서 mlb중계를 볼 때 가장 자주 생기는 함정입니다. 한국시간(KST)으로 보면 깜빡 잘못 눌렀다가 “아, 이게 벌써 끝났네”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시차 차이는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기 시작 시간을 한국시간으로 환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일정”이라도 KBO는 한국시간 감각에 맞게 보이고, MLB는 한국시간 환산이 먼저 들어가야 해요.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때도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화면을 보기 전에 “지금은 한국시간 몇 시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부터 잡아두는 거죠.

2026 KBO 개막, 144경기 시즌 리듬의 출발점

KBO 정규시즌은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로 운영되고, 3월 28일 개막했어요. 개막전은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렸고, 이건 KBO 공식 공지와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 “5개 구장 동시 개막”은 단순히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개막 직후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일정표를 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보통 시즌 초반에는 팀별 흐름을 보려다 보니, 하나의 경기만 계속 보는 것보다 “오늘 경기 중에 어디가 재밌게 붙었지”를 찾게 되거든요. 공식 일정 페이지가 날짜, 시간, 구장까지 한 번에 제공하니까 [mlb중계](#) 그 탐색이 비교적 빠르게 끝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KBO 일정이 한국에서 소비되도록 시간 노출이 KST 기준으로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일일 일정에는 18:30, 19:00 같은 실제 경기 시간 예시가 한국 표준시(KST) 기준으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야구중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충 저녁이겠지”가 아니라,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일정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KBO는 이렇게 출발부터 “한국 저녁 시간대” 감각이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MLB를 병행하는 사람도 결국 KBO 개막 시점부터는 생활 패턴을 더 단단하게 잡게 됩니다. MLB는 환산이 필요하지만 KBO는 환산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요.



MLB 정규시즌 시작, 3월 25일이 만드는 분위기

MLB 정규시즌은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양키스의 단독 개막전으로 시작했고, 3월 26일에는 나머지 팀들의 전통적 개막 일정도 이어졌습니다. 시즌이 시작된다는 건 투수 로테이션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타수와 수비 포지션이 “시범”에서 “고정”으로 옮겨가는 순간인데, 한국에서 mlb중계를 챙기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일정부터 먼저 체감해요.

문제는 시작 시간이 미국 현지 시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KST 기준으로 봐야 하니까, 같은 경기도 “내일 새벽에 할지, 밤에 할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는 시즌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Verified context에서도 계절에 따라 시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시간으로 환산하는 게 안전하다고 명시돼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감으로 넘기면 자꾸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나 일정 페이지를 볼 때, “경기 시작 시각”만 덜컥 저장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대신 한국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계 시청 루트를 고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동부시간(ET) 기준의 경기 시작을 한국시간으로 바꿔 계산하면, 최소한 “오늘 밤인 줄 알았는데 새벽이네” 같은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같은 ‘정규시즌’인데, 중계 체감은 왜 달라질까

KBO와 MLB는 모두 정규시즌을 치르지만, 한국에서 체감하는 중계 방식은 꽤 달라집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커요.

첫째는 시작 시점입니다. KBO는 3월 28일 개막이고, MLB는 3월 25일과 26일에 걸쳐 출발했죠. 그래서 MLB는 초반부터 한국 시청자들이 “어디서 뭘 봐야 하지”를 먼저 고민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KBO는 개막일이 확실히 찍혀 있으니, 그날 이후에는 일상 리듬에 더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둘째는 시간대예요. KBO는 KST 기반 일정이 제공되고, 실제로 일일 일정에서 18:30, 19:00 같은 시간이 바로 보입니다. MLB는 미국 내 여러 시간대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구조가 있고, 한국에서 mlb중계를 볼 땐 시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야구중계 보는 루틴이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KBO는 “퇴근하고 저녁에 볼 경기 고르기”가 중심이 되고, MLB는 “한국시간으로 환산해서 새벽이나 밤에 맞춰보기”가 중심이 됩니다. 둘 다 재미는 있는데, 운영 방식이 다르니, 일정 보는 습관도 달라져요.

야구중계사이트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

야구중계사이트를 쓰게 되는 이유는 보통 편의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의성이 커질수록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야구중계사이트에서도 최소한 이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편입니다.

KBO 공식 일정 페이지 기준으로는 날짜, 시간, 경기, 게임센터, 하이라이트, TV, 라디오, 구장 항목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시청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 단순히 대진만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 TV로 볼 건지, 라디오로 동행할 건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하이라이트가 뜨는 시점에 맞춰 “풀경기 시청” 대신 “압축 소비”로 넘어갈 수도 있죠. 게임센터가 있으면 경기 진행을 따라가기도 쉽고요.

반대로 MLB 쪽은 시간 환산이 더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일정 화면에서 경기 시작 시간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잡혀 있다면,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뒤에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간대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mlb중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번 운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의 기준은 이런 느낌입니다. “대진과 시간”에서 끝나는 사이트가 아니라, TV나 라디오처럼 시청 경로까지 연결되는지, 그리고 MLB 일정은 한국시간으로 확인할 장치가 있는지. 이 둘이 제일 체감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KBO 순위 페이지를 같이 보는 사람이라면

중계 전후로 뭘 더 볼지, 그 다음 클릭이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Verified context에 따르면 KBO는 일정/결과와 별도로 순위(standings)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공식 영어 페이지의 팀 순위 조회가 따로 있어요.

MLB도 전체 일정(full season schedule)과 팀별 일정 조회를 제공하죠. 즉, 경기 보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즌 흐름을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실전에서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오늘 경기 하나를 골랐다가, 그 팀이 최근 결과나 순위 흐름에서 어떤 상태인지까지 보면 같은 경기라도 시청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오늘 그냥 재미로 본다”와 “오늘 이 흐름을 확인 하러 본다”는 물입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일정 페이지에서 대진을 먼저 확인하고, 바로 다음으로 순위나 최근 결과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편입니다. 야구중계가 단순 영상 소비가 아니라, 팀의 맥락을 보는 취미로 굳어지면 이 루틴이 오래 갑니다.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일정 읽는 법이 달라진다

그럼 실제로 달력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고 묻는다면, 저는 “요일보다 리그가 먼저”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KBO와 MLB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MLB는 3월 25일과 26일에 개막 스케줄이 있고, KBO는 3월 28일에 개막합니다.

즉 3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는 MLB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되고, 3월 28일 이후부터는 KBO가 생활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엔 중계 선택이 이렇게 바뀝니다.

- MLB는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가능한 시간대”에서 먼저 고르고
- KBO는 KST 기반 일정에서 “저녁 경기”를 중심으로 고르게 되는 흐름

이렇게만 잡아도, 야구중계사이트나 일정 페이지를 뒤적이는 시간이 확 줄어요. 괜히 대진부터 찾다가 시간대에서 막히는 일이 덜 생깁니다.

그리고 mlb중계를 볼 때는 특히, 계절에 따라 시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마음에 넣어두면 좋아요. 시작 몇 경기에서 한 번 틀리면, 그 뒤로는 매 경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걸 초반에 제대로 잡아두면 시즌 내내 편해집니다.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초반, 그래도 ‘일정’이 진짜 정보다

시즌 초반 야구를 보면, 선수들이 몸을 푸는 정도나 경기 운영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결국 “언제 그 경기를 봤는지”랑 연결돼요.

MLB는 환산된 한국시간으로 경기를 맞춰 봐야 하고, KBO는 KST 기준으로 저녁 시간을 고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초반에 할 일 하나를 정리해보자면, 일정 정보를 그냥 훑고 지나가지 말고 “내가 보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KBO는 18:30, 19:00 같은 실제 시간 예시처럼 한국에서 저녁 타임에 걸리는 경기를 중심으로 두고, MLB는 다음 날 새벽이나 야근 후에 가능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두는 식이죠.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면, 야구중계가 매일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루틴이 됩니다. 경기 결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할지까지 정해지니까요.

짧게 체크하는 루틴(진짜로 쓸만한 것만)

여기서는 딱 실전 위주로만 정리할게요. 리스트는 오래 못 갑니다. 대신 다음 경기 고르는 시간이 확 줄어드는 쪽으로만 적을게요.

- 1) KBO 일정은 KST 기준 시간 그대로 보되, TV/라디오, 하이라이트, 구장을 같이 확인한다.
- 2) MLB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 기준이므로 한국시간으로 환산이 먼저다. 3) 중계 보기 전에 게임센터 유무를 체크해서 진행 흐름을 따라갈지 정한다. 4) 경기 직전에는 팀 순위나 최근 흐름을 한 번만 확인한다. 5) “오늘은 MLB가 되는 날인지, KBO가 되는 날인지” 리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다.

mlb중계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생기는 오해

요즘 야구중계사이트에서 MLB 일정 검색을 시작하는 분들이 종종 겪는 오해가 있어요. “일정표만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MLB는 그 한 줄이 들어지는 순간 전부 헛발로 가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mlb중계를 잡는 분들은, 결과를 보고 감탄하거나 실망하는 것보다 “다음 경기를 내가 볼 수 있나”를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쌓이면 결국 MLB를 보는 즐거움이 커집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놓친 날이 누적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아니라 불만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MLB는 3월 25일 개막전, 3월 26일 나머지 팀의 개막 일정처럼, 초반부터 일정 구조가 분명히 나뉘어요. 이 타이밍을 알고 있으면 초반에 화면에서 헛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KBO 개막일 3월 28일이 들어오기 전까

지는 MLB 쪽 일정에 더 눈이 가게 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요.



2026 시즌, “시작 구도”를 알면 시청이 편해진다

정리하면 2026년 정규시즌 시작 구도는 꽤 현실적이에요.

- MLB는 3월 25일 단독 개막전으로 출발하고, 3월 26일에 나머지 팀들의 전통적 개막 일정이 이어진다.
- KBO는 3월 28일 개막했고,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의 긴 여정으로 들어간다.
- 한국에서 야구중계를 볼 때는 KBO는 KST 기반 시간으로 비교적 바로 잡히고, MLB는 시차와 한국시간 환산이 필수다.
- 야구중계사이트나 일정 페이지에서 TV, 라디오, 하이라이트, 게임센터 같은 구성 요소를 같이 보면 선택이 훨씬 쉬워진다.

이 조합을 알고 있으면, “오늘 뭐 보지”가 감정 노동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잘 되면, 결국 경기를 더 자주 보게 돼요. 시즌 초반에는 특히 그 차이가 커요. 첫 한 달은 루틴이 생기는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화면을 커서 찾기 시작해보면, 3월 25일과 26일의 MLB 일정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3월 28일에 KBO 개막이 딱 끼어드는 걸 체감하게 될 겁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가지 말고, 일정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Mlb중계까지 포함해서 야구중계 루틴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도가 올해는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